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통에서 벗어나야 그 통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바다의 물이 저렇게 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전력도 되고 가스도 되고 구름도 되고 또 복사체질도 돼서 통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더불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그 나무들이 저장을 해서 우리들한테 공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공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에너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컵 하나도 지수화풍이 아니었더라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돼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지수화풍의 그 근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근본 자체도 없이, 대(對)도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죠.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그 진리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선배로서 우리들을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셨는데, 그때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내내 끝없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불가사의한 법을 말로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 아주 극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러면 관세음보살이 여기 찰나에 드셔서 법설을 하시고선 찰나에 떠난다 이 소립니다. 또 내가 아파서 참 고통스러울 때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약사가 한 찰나에 들어서 진짜 법설을 하시고선 찰나에 떠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체 부처님이든 일체 보살이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집안의 기둥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때로는 나가서 쓰레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심부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집 남편이라고 해서 그대로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심부름꾼입니다! 아래로도 심부름꾼 위로도 심부름꾼, 전부 심부름꾼이에요. 위로는 묵은 빚을 갚기 위해서 심부름해야 하고 아래로는 햇빛을 주기 위해서 심부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북하면 똥 친 막대기라고 했을까요. "불(佛)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똥 친 막대기야."라고 대답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열반 아닌 열반, 보리수 아닌 보리수를 이 몸, 나한테서 모든 것을 감지하고 찾고 발견하고 지혜를 넓히고 그러는 겁니다. 저런 하등 생명들은 청각으로나 시각으로나 그러한 걸로만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지각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공부는 재료가 당당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이러한 다섯 가지의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자기를, 자기 통을 굴릴 수 있으니까요.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통을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누진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누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누진이라고 합니까? 대뇌의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계합이 되는 그런 마당에서 누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대뇌에 잠재의식 쪽, 현재의식 쪽이 이렇게 반반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합이 된, 그런 정신 하에 누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것을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공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 같은 모든 분야가 종합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항상 그렇게 가고 있고 항상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도 그 소임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임을, 자기가 맡지 않았어도 해야 하고 맡았어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또 애들도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모든 것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 이끌고 가는 것도 내 주인공이요,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 이런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요.'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 운전을 잘 하시면서 놓고 가신다면 내 마음부터 편안해요. 왜? 벌써 이 공장장들이 지배인, 또는 사장과 한마음으로 이끌어 주니까 편안할 수밖에요. 몸을 오대양 육대주라고 해도 되고 혹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도 별성이 지금 수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내 몸을 벗어나서 내 몸 하나 다스린다면 모든 걸 다 다스리게끔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 오늘부터라도 놓고 가신다면 우환이나 가환, 병고 액난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봄을 맞이하여 아주 잔뜩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마음과도 같죠. 오늘은 여기 포항에 계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초적인 문제, 요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원효 대사가 의상 조사하고 길을 가시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딱 세 가지 요건만 얘기하죠. 예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산에 산제 지내고 그러는 데도 있고 또 상여 놓는 원두막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있죠? 예전에는 괴질이라고 했고 지금은 장티푸스라고 하든가 장질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앓는 사람을 산 채로 실어다가 원두막에 그냥 주욱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 오래 되니까 거기서 썩어서 그냥 해골이 디굴디굴 구르죠. 그런데 의상 조사와 원효 대사는 밤은 깊고 그냥 굵은 비는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거기 원두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너무나 배는 고프고 속은 닳고 해서, 무심코 손을 뻗으니까 턱 뭐가 잡히거든요. 거기서 자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이구, 누가 물을 떠다 놨구나.' 하고서 물을 탁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물 썩은 데는 장구벌레가 많이 생기죠? 해골바가지 물 썩은 데에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마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첫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원하게 먹고 잘 잤는데 깨서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면 보고 생각을 한 거하고 생각을 안 하고 먹은 거하고 어느 것이 도리가 맞느냐는 얘깁니다. 봤으면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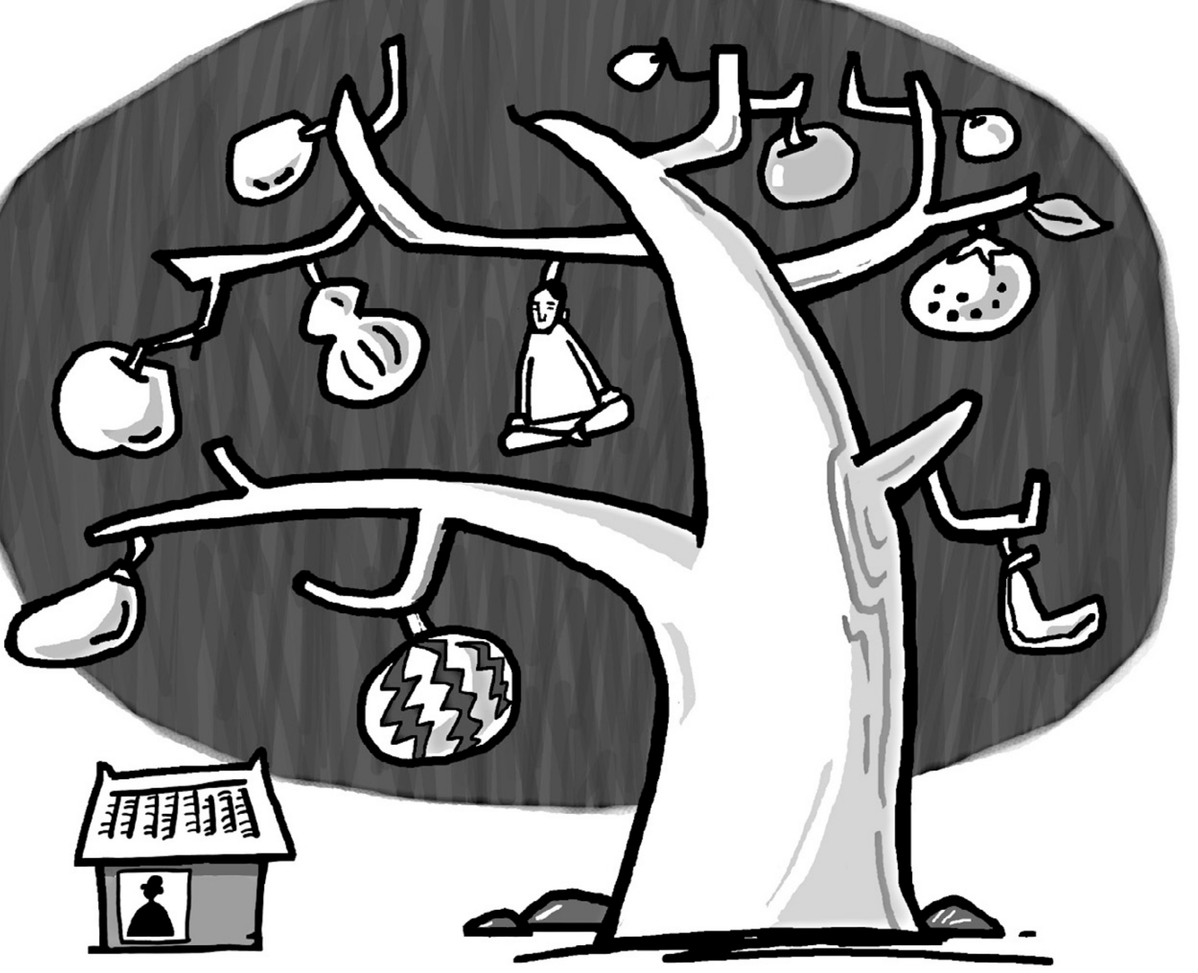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6면으로 계속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특품 벽안함초소금

함초의 효능

함초는 갖가지
미네랄의 보고이다

■ 바다 속 천연미네랄의 보고 함초

함초 100g에는 칼슘 670mg, 요오드 70mg,
나트륨이 6.5%, 식물성 섬유질이 50% 들어있다.
미네랄이 우유보다 40배가 많고,
칼슘은 우유보다 7배가 많으며
철은 김이나 다시마 보다 21배가 많고
칼륨은 굴보다 3배가 많다.
이밖에도 바닷물속에 들어있는
90가지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다.

■ 벽안함초 소금은?

함초 함유량이 20% 들어 있으며
(시중 제품은 2~10%)
최상품의 소금(음력 5~6월 채취)과
혼합하여 쓴맛이 없고 단맛이 나며
많이 짜지 않습니다.

▣ 굵은소금 최상품,함초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실
벽안상
(윤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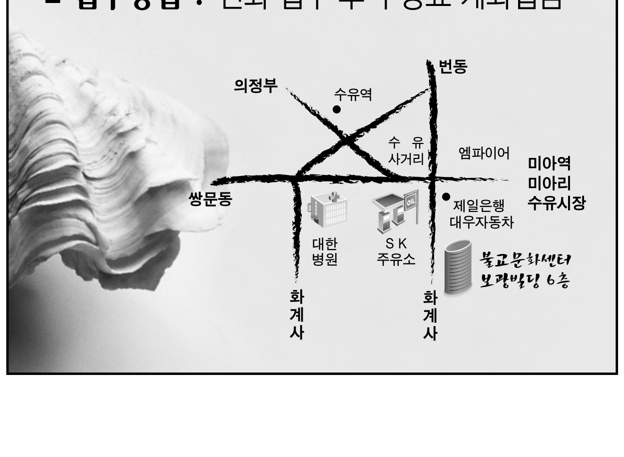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천리 666-2
전화 : 염전 061) 271-5919
공장 055) 931-5919
010-5456-5919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 수 강 료 : 10만원
-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 전 화 : 02)983-7484
-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